함평·순천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AI 검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검출
농장 감염 차단 위해 사람·차량 통제

전남 순천과 함평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금류 사육농장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 해보면 고막원천과 순천만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초동 방역 후 검출 지점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이동제한 조치했다.

함평 고막원천과 순천만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 36곳, 3곳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전면통제를 위한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철새도리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정비를 농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접 농가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5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과 반경 3㎞내 농장 10곳의 닭·오리 50만28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어 지난 8일 영암 농장과 같은 계열사인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 한 곳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돼 오리 3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반경 3㎞ 내에 있는 12개 농장 45만3500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한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대학생단체 "국민의힘 5·18무릎사과 보여주기 쇼 스스로 증명"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특별법 정쟁의 도구로 이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9일 "국민의힘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며 "열사 앞 무릎사과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단체는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뒤 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한 5·18 3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후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민낯은 5·18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답게 역사왜곡처벌법의 처벌조항이 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시간끌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5·18 3법은 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광주시민과 오월영령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광주 땅을 밟지 못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감염경로 불명' n차 전파,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광주교도소 직원 1명도 수시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광주·전남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교도소에서도 직원 1명이 수시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6명, 전남 1명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감염경로 불명'으로 분류된 기존 확진자에 의한 n차 전파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763~768번 환자로 등록된 이들 중 4명이 감염원이 규명되지 않은 환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다.

광주 763·764번 환자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635번 환자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기존 확진자들의 지인이다.

765번 환자는 정확한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주 751번 환자의 가족이다.

767번 환자 역시 761번 환자와의 접촉이 확인됐지만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다.

768번 환자는 광주교도소 직원으로 3일 주기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으로 판명됐다.

교도소 관련 집단 감염의 진원으로 꼽히는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 사례로 분류됐다.

766번 환자는 전북 지역 확진자의 가족이다.

전남에서는 화순 주민이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돼 전남 456번 환자로 등록됐다.

시·도 방역당국은 '감염원 불상' 환자에 의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곳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휴대전화 빌려주지 않아서" 50대, 초등생 2명 흉기 위협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생 B군 등 2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등은 A씨가 흉기를 꺼내자 곧바로 도주해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강제 입원시키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 경찰 수능 전 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적 활동을 접목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및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단체·소규모 모임 등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선도·보호 활동은 주로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 편의점 뿐만 아니라 술집 등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업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신분증 확인, 청소년 이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였다.

특히,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영상을 버스미디어 송출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또한 활발히 홍보하였다.

김중호 광양경찰서장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선도·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 해상서 무등록 소형 어선 침몰…2명 사상

전남 여수 해상에서 무등록 소형 어선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35분께 여수시 삼산면 한 섬 인근 해상에서 1t 이하 무등록 소형 어선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A(76)씨가 숨지고 B(78)씨는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 다른 어민이 낚시를 마치고 철수하다가 바다에 빠진 이들을 발견, 구조해 인근 섬마을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이 무등록 소형 선박을 나눠타고 낚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추정 해역에서 침몰 어선을 인양,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경찰 탈북민 등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나서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범죄예방 홍보에 나섰다.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변보호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스마트폰 해킹피해 예방내용을 담은 QR코드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등이 손쉽게 범죄피해 예방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